

제4장 청소년 문제 (1)

1. 학업 및 진로문제

학업 및 진로문제는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모든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기의 학업수행은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취업 등 진로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단계로 보면 신체·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지적 성숙에 있어서 과도기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많은 변화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진학 및 진로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강요받는다. 진학 및 진로선택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특히, 학업성취는 진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즉, 청소년들의 희망, 적성, 신념, 가치와 같은 심리적 특성보다 학업이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대해 많은 긴장을 경험한다.

가. 학업문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학업문제에 대한 사례도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학업상담은 학업부진과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도 학업문제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두 사례를 보면, 학업문제의 핵심은 학업부진이지만 이외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학업문제의 의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학업문제의 핵심은 바로 학업성적이다. 학업성적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때로는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학업성취수준이 상위권인 청소년들이 중·하위권의 청소년들보다 학업성적에 대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즉,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취수준을 유지하고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긴장 때문에 성적에 대해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 중에는 간혹 연예인, 외모, 다양한 활동 등에 관심을 두면서 학업성적을 소홀하게 여기지만 학업성적인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의 영역이다. 학업성적이 부진한 청소년들은 진학과 진로 등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사회적인 일탈행동에 빠져들기 쉽다. 또한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 및 교우관계에서도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기의 학업부진은 자아개념의 형성과 미래 설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부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학업문제의 유형

청소년이 고민하는 학업문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청소년이 가장 자주 호소하는 문제로 성적저하에 의한 정서적 불안이다. 성적저하는 청소년에게 심한 좌절과 불안을 가져오며 이에 대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질책은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 학업성적은 청소년에게 있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학업성적의 저하는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열등감은 정서적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시험불안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시험시기가 다가오면 불안과 초조감에 시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한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러한 시험불안은 성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성적 저하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의 학업문제는 학업능률 저하이다. 이것은 학업 동기는 높지만 실제로 많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도 학업성적이 향상되지 않거나 부진한 경우들이다. 학업능률이 떨어지는 학생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할 수 밖에 없고 부모 역시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학업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의집중력의 부족이다. 주의집중력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태에 따라 매우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지적 영역이다. 특히 친구나 가족 등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며 주의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둘째, 부적절하고 잘못된 학습습관과 비효율적인 학습방법 때문에 학업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면서 공부한다면 많은 시간동안 공부하더라도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정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되기 어렵다. 또한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한다면 피로가 쌓여 학교 수업시간에 즐기거나 주의집중하지 못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지능, 기초학습능력, 선행학습 수준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은 학업성

적 수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능은 학습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지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학업수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능이 학업성취 수준을 충분히 예언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필요하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학습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초학습능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더라도 각 교과별 선행학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 과목 성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유형의 학업문제는 공부에 대한 회의와 동기저하이다. 학업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한다면 학업을 소홀히 하고 다른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서 학업성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중에는 부모나 교사의 과도한 공부압력에 대한 반발이나 불건전한 활동의 탐닉으로 학업에 무관심한 학생도 있지만 문학, 취미, 예술, 종교 등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모나 교사의 가치관과 학생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학업문제 이외에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나. 진로문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진로 문제이다. 진로 문제는 앞서 설명한 학업 및 성적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고민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진로문제는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청소년 스스로 적절한 진로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진로탐색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이 부족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 부모 위주의 진로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관,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불합리한 진로결정을 하고 있다(이재창, 1994).

1) 진로의 개념

진로는 한 개인이 전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진로는 학업 뿐 아니라 개인 및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향후 일과 직업의 선택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진로지도는 졸업 후 학생들이 미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진로 계획과 선택, 의사결정, 적응문제 등을 조력하고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에 진로지도나 진로교육은 청소년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청소년들의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는 이유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인지적 발달 특징상 새로운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직업의 세계를 잘 인식하고 탐색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평생 동안 조력하는 활동으로 진로선택과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증진,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 정보탐색 및 활용능력의 함양, 일과 작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에 목적을 둔다.

2) 진로문제의 유형

청소년기는 상급학교 진학과 함께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상급학교 진학은 일과 직업 선택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아울러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에 많은 영향을 준다.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로 겪게 되는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진로문제가 바로 현실과 희망 간의 현저한 차이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진로에 대한 막연한 압박감과 두려움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입학에 대한 압박감과 좌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자기 자신과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졸업 후 취업이나 사회적응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다. 세 번째 유형은 진로선택에서 겪는 갈등으로 특히 대학전공을 선택할 때 청소년들이 흔히 경험하는 문제들이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우선 자기 탐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그만큼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2.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는 청소년 뿐 아니라 영아, 아동, 성인 등 모든 발달단계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영아들은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함으로써 생존하고 발달을 이루며 적절한 대인관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심리적 성숙을 이룬다. 에릭슨은 각 발달단계마다 중요한 타인과의 적절한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 심리적 발달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동료, 교사, 부모와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발달시키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자아 인식을 발달시키고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청

소년 시기는 중요한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의 모습에 근거해서 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건전한 인격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 대인관계 문제의 의미

에릭슨(1982)에 따르면 대인관계 문제란 상호만족을 추구하는 대인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왜곡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청소년들이 겪는 대인관계 문제들은 사회 불안증, 사회적 고립 및 위축, 대인갈등, 비주장적 행동, 공격적 행동, 지나친 의존성, 지나친 지배적 성격, 외톨이,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해서 겪는 문제들이다. 낯선 사람이나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면서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고 당황하여 정상적으로 행동하거나 과제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 불안증으로 지칭되는데 청소년들은 대인관계를 기피함으로써 이러한 불안증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또래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기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친밀한 동료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격, 지배적 성격, 자기중심적 성격, 타인중심적 성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지나치게 공격적 행동이나 이와 반대로 비주장적 행동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유발한다. 비주장적인 행동은 갈등적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권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받는다. 반대로 공격적 행동은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을 내세우고 관철시킴으로써 타인을 무시한다. 어떤 대인관계이든 의견, 욕구 등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반대로 타인중심적인 미숙한 대처방법은 대인관계 갈등을 초래한다.

네 번째 유형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대인관계에서 자칫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모의 폭력과 학대, 학교에서의 폭력, 따돌림, 놀림 등이다.

나. 청소년의 대인관계

실제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관계, 교우관계, 이성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와 관련된 갈등들이 청소년 대인관계 문제의 핵심이다.

1) 가족관계 문제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문제는 주로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갈등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은 부모와의 거리감, 소홀, 무관심, 의사소통의 부족, 지나친 관심과 개입, 형제간의 차별과 비교, 무서움, 체벌 및 구타 등이다. 또한 결손가정, 부모의 무능력으로 인한 청소년 방임은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권석만(1997)은 청소년들이 흔히 보고하는 갈등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의 생활방식, 가치관, 이성관계, 진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면서 자녀가 부모의 방식과 가치에 따르도록 강요한다. 이때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청소년 자녀는 이러한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부모의 방형제시나 지원이 중단될 때 무력감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태도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자녀들의 경우, 부모가 극단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체벌을 하기도 하고 결국 자녀는 가출 등의 저항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둘째,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부모가 경제적 또는 정서적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무력한 경우이다.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혼자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결핍감,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가족 밖의 인간관계 형성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해지는데 만족스러운 친구관계나 이성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심한 우울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지나친 의존적 관계이다. 자녀에게 의존적인 부모는 가정의 의사결정이나 부양책임을 자녀에게 전가시킬 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나 위안도 자녀로부터 얻으려고 한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좌절된 애정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며 청소년 자녀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진로탐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겪는 문제가 바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다. 부모의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형제자매들은 경쟁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형제자매간 경쟁으로 나타난다. 형제자매간 경쟁이 심화되면 서로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악화되고 형제자매간 비교를 통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겨날 수 있다.

청소년기는 통성 친구간의 대인관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교우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친구는

심리적인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이며 참조의 대상이며 동시에 경쟁자이다.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대립과 갈등을 극복해나가는 노력의 결과로 형성된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 문제와 갈등에 대해 위로와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전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고립되기도 한다. 동성친구와의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발생요인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권석만, 1997)

첫째, 교우관계형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심한 청소년들은 교우관계를 능동적으로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또는 외모, 성적, 행동상의 문제나 독특성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놀림,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사회적 기술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친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교우관계를 심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에서 벗어나 긴밀한 교우관계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긴밀한 교우관계를 통해 심리적으로 상호지지와 공감을 얻음으로써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해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큰 불안과 고립을 경험한다.

셋째, 교우관계에서 빈번한 다툼과 갈등을 겪는 경우이다. 청소년들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소한 의견이나 사고의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며 다툰다. 상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쉽게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깨뜨리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넷째, 교우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어울리는 일어 많은 시간을 빼앗겨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또한 소위 '문제청소년'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불량한 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교우문제는 청소년 사진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밖에도 학교 또는 같은 반 소집단간의 갈등과 경쟁, 단짝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편협한 교우관계, 교우들에 대한 지나친 피해의식과 공격행동, 전학이나 이사로 인한 단짝 친구에 대한 상실감과 같이 청소년들이 교우관계에

서 겪는 어려움들은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이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청소년들이 이성 관계에서 흔히 겪는 문제들은 첫째, 이성 친구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몰두, 둘째, 이성친구와 교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 셋째, 이성 친구에 대한 지나친 수줍음과 불안, 넷째, 이성 친구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과 혐오감, 다섯째, 이성교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등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하면서 학교생활과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는 등 학생신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곧 이성교제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가령, 이성교제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고 예의범절을 익히고 사회적 기술을 터득하는 사회화 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건전한 이성교제 방법의 미숙 등이 이성친구와의 성적인 행동을 통한 임신이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한 성폭력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는 이외에도 교사와의 관계, 선후배 관계 등 주변의 모든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간관계 문제는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정서적 문제로 표출되며 때로는 학업저하, 비행, 가출 등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3. 비행 및 일탈

충동성과 공격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들은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성에 근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초기는 제2차 성장의 변화로 급격한 신체성장과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제 2차 성장의 성 호르몬 분비는 이러한 변화 뿐 아니라 충동성과 공격성, 모험적 행동을 자극한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 초기의 무모한 도전이나 위험한 행동은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과다 분비되는 도파민의 영향도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는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남녀 학생들은 이전보다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친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사소한 자극에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은 청소년 시기에 사고를 관장하는 대뇌신경망이 엄청난 속도로 복잡하게 연결되지만 아직 체계적이

고 조직적으로 구축되지 못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는 외부의 시각적 자극이 사고판단 중추인 대뇌로 바로 전달되는 직접적인 정보전달경로가 사용되기 때문에 행동보다 사고와 판단이 우선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시각적 자극이 다른 경로를 거쳐 대뇌로 전달되는 간접 전달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에 앞서 행동이 먼저 나타난다.

가. 청소년 비행

비행은 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지만 청소년과 관련해서 본다면, 현재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앞으로 사회 설정법인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은 절도, 강간, 향정신성 약물 복용 등과 같은 심각한 청소년 범죄 뿐 아니라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지나친 성인모방 행동 등과 같은 일탈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나. 청소년 비행의 유형

상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흔한 청소년 비행문제는 폭력적인 행동이다. 학교에서 자주 싸우며 친구나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청소년 비행이다.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행동들은 불량서클을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다른 심각한 비행들을 일으킨다.

두 번째 유형은 성 범죄 및 성 비행이다. 청소년들의 성 비행은 성과 관련된 가벼운 언어적인 행위부터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강간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욱이 성범죄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원조교제, 또래간의 성폭력, 그리고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적 일탈이 더욱 심각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나 성 접촉 의사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밝히고 만남을 시작하거나 이러한 잘못된 만남의 시작이 공갈, 협박, 갈취 사건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 유형은 약물남용 문제이다. 술, 본드, 담배, 환각제, 각성제 등 여러 가지 중독성 물질을 상습적으로 남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가출, 늦은 귀가, 거짓말, 도벽, 도박 등과 같은 비공격적인 일탈행동이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타인에게 계획적으로 해를 끼치는 나쁜 의도보다는 대부분 호기심과 충동성에서 시작된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행동자제력이 부족해서 일탈행동을 반복한다. 그래서 부모나 가족들은 자신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청소년의 이러한 일탈은 일부 비행청소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학

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평범한 학생들도 저지를 수 있는 행동들이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기보다 타의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동기가 매우 낮다. 따라서 비행은 반복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과정이 쉽지 않다. 또한 비행은 가족 및 학교생활의 불만족, 비행행동, 부모와 교사의 질책, 가족 및 학교에 대한 불만 증대, 비행행동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결과이기 때문에 청소년 개인 비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함께 다뤄야한다.